<h1>나 혼자만 레벨업-71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f99d1f5457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1화</p>  
<p>유진호는 당황스러웠다.</p>  
<p>'...레드 게이트?'</p>  
<p>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?</p>  
<p>워낙 말이 많은 사건이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는 않았으나, 타이밍이 공교로워 아버지의 의도를 짐작하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'거기다 저 사람...'</p>  
<p>생존자라는 남자.</p>  
<p>언론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생존자가 어째서 여기까지 불려 나온 걸까?</p>  
<p>유진호의 궁금증은 커져 가기만 했다.</p>  
<p>그런 그를 지켜보던 유명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.</p>  
<p>"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구나."</p>  
<p>"예?"</p>  
<p>유명한은 혼란스러워하는 유진호를 내버려 두고,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는 고명환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헌터님."</p>  
<p>"네."</p>  
<p>"그날 거기에 백호 길드의 신입들 말고 누가 있었는지 내 아들에게도 알려 주시오."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고명환의 시선이 유진호를 향했다.</p>  
<p>의도치 않게 고명환과 시선을 마주하게 된 유진호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떠올랐다.</p>  
<p>그러는 사이 고명환이 말했다.</p>  
<p>"고등학생쯤 되는 어린 여자 헌터 하나와."</p>  
<p>'어린 여자 헌터?'</p>  
<p>그때까지만 해도 유진호는 고명환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.</p>  
<p>"성진우 씨입니다."</p>  
<p>덜컥.</p>  
<p>유진호는 자기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.</p>  
<p>'혀, 형님께서 레드 게이트에?'</p>  
<p>어떻게 된 일일까?</p>  
<p>안 그래도 혼란했던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. 그런데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.</p>  
<p>'가만, 그러고 보니 며칠 전...'</p>  
<p>형님께서 생전 아는 척도 안 하던 한송이와 익숙하게 대화를 나누셨었다.</p>  
<p>"혹시 그 어린 여자 헌터 이름이?"</p>  
<p>"한송이 양입니다."</p>  
<p>이럴 수가.</p>  
<p>유진호의 입이 쩍 벌어졌다.</p>  
<p>이해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에 그런 비밀이 있었을 줄이야.</p>  
<p>'그렇다면 설마?'</p>  
<p>그동안 뉴스에서 내내 가능성을 언급해 오던 조력자의 정체가 바로...</p>  
<p>유진호가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명환은 재빠르게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.</p>  
<p>"한송이 양과 저희 백호 길드원들은 성진우 씨 덕분에 레드 게이트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"</p>  
<p>'하, 하하...'</p>  
<p>형님, 대체 거기서 뭘 하신 겁니까.</p>  
<p>유진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반반쯤 섞인 표정을 지었다. 그러다가 아버지 앞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서 물었다.</p>  
<p>"레드 게이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"</p>  
<p>고명환은 옆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유명한이 고개를 끄떡였다.</p>  
<p>입이 간지러워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던 고명환이 그제야 신이 난 얼굴로 설명을 이어 갔다.</p>  
<p>"그게 말입니다."</p>  
<p>듣는 유진호도 눈을 반짝였다.</p>  
<p>"처음에는 웬 E급 헌터 둘이 신입 훈련 과정을 견학하러 온다고 해서 좀 황당했었죠. 그런데..."</p>  
<p>고명환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마치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받은 아이가 친구처럼 자랑하는 것 같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A급 헌터를요?"</p>  
<p>들뜬 사람은 고명환 하나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"그렇다니까요!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딱! 뒤통수를 내려쳤는데 그 자리에서 김철이..."</p>  
<p>"허..."</p>  
<p>형님의 활약상을 들을 때마다 유진호는 자기 일처럼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'역시 형님이시다.'</p>  
<p>상급 마수를 때려잡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.</p>  
<p>A급 헌터를 한 방에 쓰러뜨리다니.</p>  
<p>그런 대단한 사람의 옆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.</p>  
<p>고명환의 이야기는 계속됐다.</p>  
<p>"...아이스 엘프 수십 마리가 눈 앞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..."</p>  
<p>너무 집중해 들었기 때문일까?</p>  
<p>시간은 금방 흘러갔다.</p>  
<p>결코 짧지 않았던 그날의 경험담도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흥분한 고명환은 목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성진우 씨는 거기 있었던 전원의 은인이에요."</p>  
<p>유진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고명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. 자신도 도움받은 적이 있었으니까.</p>  
<p>"그런데 성진우 씨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니요? 저는 백호 길드의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회장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."</p>  
<p>그때 유명한이 정중하게 고명환의 말을 가로막았다.</p>  
<p>"고명환 헌터님."</p>  
<p>"네?"</p>  
<p>"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."</p>  
<p>"아, 제가 좀 흥분했네요. 죄송합니다."</p>  
<p>고명환은 민망해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유명한의 시선이 다시 유진호를 향했다.</p>  
<p>"그렇게 성진우 헌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이 하나 나오더구나."</p>  
<p>유명한의 손끝.</p>  
<p>검지가 가리키는 곳에는 유진호의 이름이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아까 유명한에게 건넨 레이드 자료였다.</p>  
<p>검지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이번엔 '성진우' 석 자 밑에서 멈추었다.</p>  
<p>공대장 유진호, 공대원 성진우.</p>  
<p>발뱀할 수 없는 증거였다.</p>  
<p>'들켰다...'</p>  
<p>길드 마스터 면허 습득 과정에서 형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말았다.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"네가 길드장 면허를 따는 데는 성진우 헌터의 도움이 컸다. 인정 하느냐?"</p>  
<p>"...인정합니다."</p>  
<p>"더 할 말이 있느냐?"</p>  
<p>"..."</p>  
<p>유진호는 눈앞이 깜깜해졌다.</p>  
<p>길드 마스터 면허증 취득에 형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알려진 이상, 유진 길드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아버지의 엄한 눈빛.</p>  
<p>예전부터 저 눈빛만 보고 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렸다.</p>  
<p>'하지만.'</p>  
<p>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용기를 냈다.</p>  
<p>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제게 유진 길드를 맡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"</p>  
<p>"알겠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시원스런 대답에 유진호의 고개가 들렸다.</p>  
<p>"네게 유진 길드를 맡겨 보마."</p>  
<p>"어째서...?"</p>  
<p>"네가 말했지 않느냐. 외부인에게 길드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. 네가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?"</p>  
<p>"하,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속이려 했고."</p>  
<p>"그래서 내가 혼이라도 내고 쫓아낼 줄 알았더냐?"</p>  
<p>어째서일까?</p>  
<p>왠지 아버지의 얼굴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. 입은 언제나처럼 일자로 꾹 닫혀 있었는데 말이다.</p>  
<p>"네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던전에 들어갔다면 그리했을 것이다. 나는 그런 바보를 아들로 둔 기억이 없으니."</p>  
<p>유진호는 순간 얼굴이 화끈했다.</p>  
<p>'형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쯤 아버지께 혼나고 쫓겨났겠구나.'</p>  
<p>아니, 그전에 이미 죽었겠지.</p>  
<p>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유진호였다.</p>  
<p>"대신 조건이 있다."</p>  
<p>"네."</p>  
<p>"이 성진우라는 헌터... 유진으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?"</p>  
<p>유진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형님을요?"</p>  
<p>'형님?'</p>  
<p>유명한의 눈에 이채가 어리었다.</p>  
<p>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.</p>  
<p>"그래."</p>  
<p>유진호는 말문이 막혀 왔다.</p>  
<p>'끄응...'</p>  
<p>여기서 자신감을 피력하는 게 좋은 인상을 남길 거라는 사실은 코흘리개 애들도 알 수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상대는 형님이다.</p>  
<p>부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자신이 없었다.</p>  
<p>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다.</p>  
<p>"잘 모르겠습니다."</p>  
<p>"잘 됐구나. 조건이 너무 쉬우면 의미가 없으니."</p>  
<p>유명한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다.</p>  
<p>"네가 실패하면 길드는 네 형에게 넘기겠다. 한번 해 보겠느냐?"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이 비장해졌다.</p>  
<p>'어떻게 잡은 기회인데...'</p>  
<p>여기서 물러선다면 마지막까지 도와주신 형님께도 면목이 없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진지한 눈을 하고서 말했다.</p>  
<p>"해 보겠습니다."</p>  
<p>"좋다."</p>  
<p>아버지의 대답을 끝으로 부자간의 딜은 끝났다.</p>  
<p>유명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, 유진호는 일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.</p>  
<p>유명한은 손수건을 입에서 뗐다.</p>  
<p>자꾸만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를 숨기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'녀석...'</p>  
<p>유진 길드를 달라니.</p>  
<p>약속을 잡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.</p>  
<p>'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이인 게야.'</p>  
<p>유명한의 입가에 미소가 점점 번져 나갔다.</p>  
<p>'그 유명한 회장이 웃고 있어!'</p>  
<p>고명환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유명한 회장의 별명은 포커페이스.</p>  
<p>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름난 인물이었다.</p>  
<p>고명환이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자, 유명한 회장이 옆을 돌아보고 물었다.</p>  
<p>"헌터님,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?"</p>  
<p>갑작스런 시선에 당황한 고명환은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"아, 아닙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...47, 48, 49, 50.</p>  
<p>진우는 무서운 속도로 상층을 향해 나아갔다.</p>  
<p>[중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3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.</p>  
<p>.</p>  
<p>[중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중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올라가는 경험치와 쌓여 가는 영혼들을 보고 있노라면 힘든 줄도 몰랐다.</p>  
<p>[수집한 영혼의 개수: 4,388]</p>  
<p>'아직은 반 정도인가?'</p>  
<p>여기 들어 온 뒤로 정말 끝도 없이 악마들을 잡은 것 같은데 역시 만 마리의 벽은 높았다.</p>  
<p>하지만 레벨은?</p>  
<p>[레벨: 69]</p>  
<p>하루 만에 다시 2업.</p>  
<p>처음보다는 느려졌으나 그래도 영혼 수집 속도에 비하면 엄청 빨랐다. 지금도 착착 경험치가 쌓여 갔다.</p>  
<p>"끼에에엑!"</p>  
<p>[...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3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...]</p>  
<p>"휴-!"</p>  
<p>눈에 보이는 마지막 악마를 처치하고서, 진우는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늠름하게 서 있는 그림자 병사들 발아래 중급 악마들의 사체가 무수히 널브러져 있었다.</p>  
<p>짝.</p>  
<p>진우는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.</p>  
<p>"수고했다."</p>  
<p>열심히 싸운 병사들은 순식간에 그림자로 돌아갔다.</p>  
<p>마정석은 병사들이 주울 수는 있어도 아이템은 진우만이 획득 가능했다.</p>  
<p>[...를 획득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일일이 시스템 메시지를 승낙해야 하니까.</p>  
<p>'이건 좀 불편하구만.'</p>  
<p>그래서 악마들의 수가 많지 않을 땐 혼자서 후딱 해치우고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올 땐 병사들과 함께 싸웠다.</p>  
<p>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수금이 시작되는 거다.</p>  
<p>'이게 뭐가 재밌다고 진호는 계속 시켜 달라 했던 거지?'</p>  
<p>진우는 몬스터 사체에서 아이템을 꺼내며 피식 웃었다.</p>  
<p>그리고 불편한 거 하나 더.</p>  
<p>악마성에서는 그림자 병사들의 충원이 불가능했다.</p>  
<p>중급, 하급을 막론하고 악마들의 사체에서는 추출 가능 대상임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다.</p>  
<p>'눈으로 사체를 응시하고 있어도.'</p>  
<p>[오염된 마나입니다.]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불가능합니다.]</p>  
<p>마나가 오염되어서 추출이 안 된다는 메시지뿐.</p>  
<p>'뭐, 어쩔 수 없나?'</p>  
<p>진우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체들을 훑어보고 있자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아이템: 중급 악마의 뿔' 29개를 발견하였습니다.]</p>  
<p>[모두 획득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'물론!'</p>  
<p>언제나처럼 잔뜩 쏟아지는 아이템을 보며 그림자 추출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 버리는 진우였다.</p>  
<p>'직접 사용할 만한 건 없네.'</p>  
<p>전부 판매!</p>  
<p>잡다한 아이템들을 상점에 처분하니 짜르륵 골드가 입금됐다.</p>  
<p>[보유한 금액: 914,690,772 골드]</p>  
<p>헉!</p>  
<p>무심코 창고를 확인한 진우의 눈이 커졌다. 창고에 쌓인 골드가 벌써 9억을 넘어서고 있었다.</p>  
<p>'하긴 악마의 뿔 하나 가격이 20만원인데 4천 마리를 넘게 잡았으니.'</p>  
<p>그 밖에 기타 잡템들을 처분한 가격까지 차곡차곡 더해지니 골드가 무시무시하게 쌓여 갔다.</p>  
<p>'S급 무기나 방어구 하나 살까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아직 필요성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돈이 모였다고 억지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.</p>  
<p>'언젠가 적절히 쓰일 때가 있겠지.'</p>  
<p>진우는 창고를 닫고서 손을 탁탁 털었다.</p>  
<p>대충 주변 정리는 끝났다.</p>  
<p>필수품인 51층 진입 허가서는 한참 전부터 획득해 놨고, 이제 마법 엘리베이터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 건데..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빛의 기둥을 향했다.</p>  
<p>약간 떨어진 마법진 앞.</p>  
<p>거대한 악마 하나와 다수의 상급 악마들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거대 악마의 이름이 검은색으로 진하게 박혀 있었다.</p>  
<p>[하층의 지배자, 탐욕스런 볼칸]</p>  
<p>수십 톤, 아니 수백 톤은 나갈 것 같이 보이는 육중한 살덩어리. 놈의 한손에 들린 어마어마한 크기의 몽둥이가 흉악스러웠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저게 중간 보스란 말이지?'</p>  
<p>인던의 보스들에게는 나쁜 기억이 없었다. 항상 높은 경험치와 좋은 아이템을 받았다.</p>  
<p>고생만 하고 보상은 적은 보스급 마수들에 비하면 보스 몬스터들은 선물상자나 다름없었다.</p>  
<p>저놈은 어떤 아이템을 쏟아 낼까?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는 웃으며 군침을 삼켰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